

MBTI 성격유형에 따른 커뮤니케이션 능력과 대인관계 만족도에 관한 연구

황보식* · 장혜숙**

요 약

본 연구는 사관생도의 MBTI 성격유형에 따른 커뮤니케이션 능력과 대인관계 만족도에 관한 연구이다. MBTI 성격유형 분포를 보면 남생도의 경우 ESTJ(16.7%)로 가장 많았고, 여생도의 경우는 ENFJ(16.7%)와 ENFP(16.7%)가 빈도수가 높았다. 성격유형과 커뮤니케이션 능력간의 차이가 있었고, 성격유형과 차이가 있는 지를 살펴보기 위해 사후검증으로 LSD를 활용하였다. 그 결과 성격유형과 커뮤니케이션 능력간에는 E(외향형)과 I(내향형)간 차이가 있다는 결과를 얻었고, 성격유형과 대인관계 만족도의 결과에서도 E(외향형)과 I(내향형)간 대인관계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커뮤니케이션 능력과 대인관계 만족도와의 상관관계에서 매우 정적인 상관($r=.604(p<.01)$)을 보였다. 결국 본 연구의 의의는 사관생도의 성격유형에 따른 커뮤니케이션 능력과 대인관계 만족도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는 것을 증명하였고, 성격유형에 따른 훈육방향을 제시해 줄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Communication competence and Satisfaction in Interpersonal Relationship on MBTI personality patterns(Focused on 3th military Cadet)

Sik-Hwangbo* · Haesook-Jang**

ABSTRACT

This study explores communication competence and satisfaction in interpersonal relationship according to MBTI personality patterns. Looking at the distribution of MBTI personality patterns among male cadets, number of ESTJ(16.7%) is the highest, For female cadets, the highest in number is ENFJ(16.7%). There is discrepancy in communication competence depends on personality patterns, in order to verify such disparity, LSD was applied as a post-verification. As a result, there was discrepancy in communication competence between E(extravert) and I(introvert), also in satisfaction in interpersonal relationship between E(extravert) and I(introvert). Correlation between communication competence and satisfaction in interpersonal relationship showed static relation($r=.604(p<.01)$). In conclusion, this study proves significant relation of communication competence and satisfaction in interpersonal relationship according to cadet's personality patterns statistically. Also this study is significant because it can indicate directions that needs to be taken for discipline of cadets.

Keyword: Cadet, MBTI, Communication, Humanrelationship, Satisfaction

접수일(2016년 4월 11일), 수정일(1차: 2016년 5월 23일)
게재확정일(2016년 5월 27일)

* 영남대학교 / 정치행정대학 군사학과(저자)

** 육군3사관학교 / 생도대 리더십센터(교신저자)

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사관학교의 교육목적은 정예장교를 양성하는 것이며, 무엇보다도 가장 강조되는 것은 사관생도의 인성과 품성 배양이다. 한 사람이 사관생도로서의 인성과 품성을 확립하고 바람직한 가치관을 지닌 장교로 태어나도록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생도들의 경우 자기결정에 의해서 사관학교에 입교를 하였으나 어떤 생도의 경우 잘 적응하는 반면에 다른 생도의 경우 학교 부적응으로 인해서 매우 힘들어하는 경우가 있다. 상담 장면에서 호소하는 문제 중에서 생활관의 동기들과의 커뮤니케이션, 그리고 동기간의 대인관계로 인해 힘들다고 호소하는 경우가 많았다.

사관생도란 사관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으로서 영어로는 'Cadet'이며 한문으로 '士官生徒' 즉 장교가 되기 위해 깨어있는 무리라고 정의하고 있고 두산동아 사서편집국은 '장교가 되기 위해 교육을 받고 있는 사람'으로 정의하며 개인의 특성, 직무의 특성 그리고 작업 경험적 특성을 제시하고 있다. 세부적으로 봤을 때 가치관 면에서는 명예, 충성, 책임, 용기, 창의와 같이 육군의 5대 가치관이 그대로 보여 졌고 행동 및 의적자세 면에서도 절도 있고 당당하며, 강인함과 단정함이 느껴지는 언행과 절제와 규정 준수, 항상 몇몇하고 신념 있는 행동들이 생활화된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었으며 공식적인 생도교육을 처음으로 받게 되면서 사회와 독립적인 접촉을 시작하며 점차 확장된 대인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게 된다[1]. 이러한 사관생도들도 발달단계로 보면 청소년 후기에 속한다. 아직은 대인관계와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완전히 발달되기는 어려운 단계이다. 각자 20년 넘게 다른 삶을 살아온 생도들의 경우 서로의 경험과 이해가 다르기 때문에 커뮤니케이션 능력은 생도생활에서 적응과 부적응으로 나누어 질 수 있을 만큼 매우 중요하며 연구되어야할 충분한 가치가 있는 것이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을 '사회적 동물'이라고 말했다. 인간은 누구나 이 세상에 태어나는 순간부터 수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다양한 공동체를 통해서 대인관계를 맺고 살아간다. 이처럼 인간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떠나서는 온전하게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라는 점에서 대인관계는 실제적인 인간의 본질적인 측면이며 필연적인 부분이다.

이런 개개인이 행복하게 살고 자기실현을 하기 위해서는 긍정적인 대인관계가 필요한데 대인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로서 성격유형에 따른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생도 간의 대화 과정에서 자신이 원하는 바가 전달되고 이것이 동료에게 수용되면 생도는 만족과 행복을 느끼게 되지만, 그것이 묵살되거나 무시당하게 될 때는 불만족, 좌절, 갈등과 더불어 불행한 감정을 경험하게 된다. Wiemann과 Kelly는 커뮤니케이션 능력은 사람들이 자신의 행동이 충분한 파워를 가질 수 있는 성향을 알아내고, 만족스러운 대인적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행동을 알아내는 것이라고 하였다[2].

상담실에서 진로변경으로 상담을 하는 생도의 대부분의 경우 특정 유형의 생도들의 경우 사관학교의 통제와 규율을 담당하며 결국 진로변경을 하는 경우가 있다. 성격유형에 따라 생도들의 커뮤니케이션 능력과 대인관계에 대한 만족도가 다를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여기에서는 사관생도의 커뮤니케이션 능력과 대인관계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해서 최근 기업체 및 상담실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는 MBTI 성격유형 검사를 이용하였다.

MBTI 성격유형 검사는 Jung의 학설을 바탕으로 정립된 검사도구이다. Jung은 자신의 임상적인 경험을 토대로 연구결과로서 심리적 유형론이라는 학설을 발표하였다. 그는 심리적 유형론에서 일반적 태도로서 외향형과 내향형, 그리고 정신기능상의 유형으로 감각과 직관형, 사고와 감정형으로 구분하여 인간의 성격을 8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였다. Jung의 심리 유형론은 Myers와 Briggs에 의하여 인간의 유형을 16가지로 구분하는 검사도구로 개발되어 많은 영역에서 활용되고 있다[3].

상담분야에서 MBTI는 지난 40년간 개인상담, 집단상담, 학업 및 진로지도, 가족상담의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다. Myers와 McCaulley는 내담자의 성격유형을 알고 유형이론을 토대로 하여 내담자의 행동 경험에 비추어 검증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하였다[4].

인간은 세상에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삶든 좋든

간에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야 한다. 인간이라는 말의 어원 자체가 '사람과 사람 사이'를 뜻하므로,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하게 된 이상 인간관계는 우리의 삶의 본질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인간은 삶에 있어서 타인의 존재가 반드시 필요하며 타인과의 친밀한 관계가 중요하다는 것을 의식적 또는 무의식으로 내면화하기 마련이다. 따라서 고립과 소외를 두려워하고 집단으로부터의 배척과 축출을 무서워하게 되고, 집단에 대한 안정된 소속감과 타인의 애정을 추구하는 사회적 존재가 되는 것이다[5].

최근 연구에서는 대인관계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대인관계적도 개발에 관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문선모는 윤호균의 지향성 이론을 바탕으로 대인관계의 지향성 척도를 개발하고자 126개의 지향성 척도 예비문항을 선정하여 30문항으로 구성된 지향성 척도를 실시하여 신뢰도와 타당도를 검증하였고 [6], 김기정과 관오정은 중학생을 대상으로 사회적 측정법을 사용하여 교우관계의 유형을 알아보고, 급우를 좋아하는 이유와 좋아하지 않는 이유를 파악하면서 교우생활 적응도와 학교생활 만족도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7].

본 연구에서는 사관생도들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로써 이들은 장차 대한민국의 군을 이끌어갈 인재들이다. 이들은 임관 후 소대장 역할을 하게 된다. 요즘 다양한 군문제가 부각되고 있으며 더욱이 대인관계형성에 대해 초점이 맞추어지고 있다. 따라서 성격유형에 따라 커뮤니케이션 능력과 대인관계 만족도에 대한 상관관계에 대해 연구 하는 것은 생도들의 생활 적응에 대한 원인 규명 및 훈육방향을 제시해 줄 수 있다는 면에서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1.2 연구의 문제

이 연구는 사관생도의 MBTI 성격유형에 따라 커뮤니케이션 능력과 대인관계 만족도에 어떤 영향이 있으며, 그 영향관계에서 비롯되는 차이가 구체적으로 드러나는지를 살펴보는 데 목적이 있다.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이 연구문제를 선정하였다.

[연구문제 1] MBTI 성격유형에 따라 커뮤니케이션 능력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2] MBTI 성격유형에 따라 대인관계 만족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3] 커뮤니케이션 능력과 대인관계 만족도는 어떠한 관계를 보이는가?

1.3 용어정의

본 연구에서 논의되는 용어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3.1 MBTI

MBTI(Myers Briss Type Indicator)는 Jung의 심리유형 이론을 경험적으로 검증하여, 실생활에 이용하기 위해 Briggs와 Myers에 의해 개발된 것이다. MBTI는 네 가지의 분리된 지표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지표는 네 가지의 기본적인 선호경향 중의 하나를 나타내고 있는데 각 선호경향의 내용은 첫째, 사람의 주의 초점인 에너지의 방향에 따라 외향형(E; Extraversion) - 내향형(I; Introversion) 둘째, 인식의 기능에 따라 감각형(S; Sensing) - 직관형(N; Intuition) 셋째, 판단의 기능에 따라 사고형(T; Thinking) - 감정형(F; Feeling) 넷째, 행동양식에 따라 판단형(J; Judging) - 인식형(P; Perceiving) 으로 구분된다.

1.3.2 커뮤니케이션

의사소통이라고 번역되는 커뮤니케이션의 어원은 라틴어 'communis'에서 유래한다. 'com-munis'는 '공통되는(common)', 혹은 '공유하다(share)'라는 뜻을 지니고 있으며, 여기서 파생된 '공동체'또는 '지역사회'를 의미하는 'community'와 뿌리가 같다(신정윤, 2008). 따라서 커뮤니케이션이란 항상 상호 관계적으로 영향을 주고받는 것이라는 원론적인 논리에 근거하고 있다(김세연, 2005). 즉 상대방에게 자신의 생각을 일방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아닌 서로의 생각을 주고받는 것이다. 이 개념에는 상대방과의 대화나 협상을 통해 원하는 것을 얻어내고, 상대방과 메시지를 공감하며 상호 이익을 보는 것, 문서를 효과적으로 작성하여 상사나 고객에게 보고하는 것 등이 포함된다. 곧 특정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이를 수용하는 과정, 발화자의 수신자 간의 끊임없는 연락이 바로

‘커뮤니케이션’이라 할 수 있다.

1.3.3 대인관계

대인관계란 두 사람 또는 그 이상의 사람들 간의 역동적이며 지속적인 상호작용의 복합적인 패턴으로 볼 수 있다. 또한 대인관계는 서로의 생활에 대하여 주관적이고 인간적인 측면에서 상대방에게 예민한 관심을 보임으로써 형성되는 관계이다. 특히, 대학생(생도)들은 타인과의 만족스럽고 효과적인 대인관계를 경험함으로써 보다 풍부하고 완성된 인간으로 발달할 수 있다. Heider(1964)는 대인관계를 개인이 다른 사람들을 대하는 보편적인 심리적 지향성으로서 내적인 특성과 외적 행동 간의 관계로 보았다. 즉 개인이 타인에 대해 어떤 생각과 느낌을 가지고 반응하며 어떻게 타인을 지각하고 그에게 어떤 행위를 하는가, 타인에게 무엇을 기대하는가에 대한 심리적 지향성의 양식이 대인관계의 측면이라고 정의한다.

라. 대인관계 만족도

대인관계 만족도란 대인관계의 하위 범주 또는 부분적 개념으로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불특정 다수 사람 및 친구, 부모와의 관계 속에서 개인이 기대하는 요구수준에 얼마나 만족감을 느끼는지를 의미한다.

2. 이론적 배경

본 장에서는 커뮤니케이션 능력과 대인관계 만족도 그리고 MBTI 선행연구에 대한 이론적 고찰을 하고자 한다.

2.1 커뮤니케이션 능력

커뮤니케이션 능력은 서로 다른 특성을 지닌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대화함에 있어서 상대방의 생각과 감정을 올바르게 인지하고 그에 맞는 적절한 반응을 전달하는 것으로 집단, 조직 및 사회생활에서 중요한 능력이다[8]. 이러한 커뮤니케이션 능력에 대한 관심은 고대 그리스, 로마시대부터 시작되었다. 그 당시 수사학에 관심이 많았던 철학자들은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수사법’과 ‘말하기 기술’이라는 말로 표현하였으

며, “우아하고 훈련받은 방법을 실행할 수 있는 능력”으로 정의하였다[9]. 그 이후로도 커뮤니케이션 능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심리학, 언어학, 사회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여러 학자들의 의미 탐색이 시작되었다.

1970년대 들어오면서 커뮤니케이션 능력은 더욱더 다양한 방식으로 논의되어 왔으나 광범위한 관점과 학문분야에 기초하고 있다는 문제점 때문에 일치된 개념을 구성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커뮤니케이션 능력에 대한 이와 같은 개념적 정의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학자들의 정의에는 관점에 따라서 네 가지 틀의 공통된 속성을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인지적/행동적 관점에 따라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다르게 정의하고 있는데, 인지적 관점은 선천적으로 타고나는 지식적 차원이고 행동적 관점은 실행을 통한 목적달성, 즉 효과성의 차원이다. 둘째,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내적 요인에 초점을 두는 기질적 성향으로 보느냐 외적 요인에 초점을 두는 특정한 상황으로 보느냐에 따라 성향적/상태적 관점으로 나누는 것이다. 셋째, 인지적 관점과 유사한 언어적 관점, 행동적 관점과 유사한 대인적 관점, 상호작용을 통한 관계적 관점으로 나누어 정의한 것이다. 넷째, 능력에 관한 연구는 광범위한 관점과 학문분야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개념적 정의 역시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다.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환경적 능력, 사회적 능력, 수사학적 능력, 지시적 능력, 상호작용적 능력 등 매우 다양한 용어로 사용되어 왔다는 것이 이를 잘 설명해 주고 있다. 이처럼 커뮤니케이션 능력은 학자들의 학문적 배경이나 연구목적에 따라 다르게 정의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개념적 구분들은 상호배타적인 것이 아니라 상호 연관성을 지니고 있으며, 관점의 구분은 상대적으로 어느 입장에 치우쳐 있느냐에 따라 분류된다.

특히 1970년대 후반부터 1980년대는 척도 개발을 통하여 커뮤니케이션 능력의 구성요인을 설명하려는 시도들이 연구의 중요한 축을 형성해 왔다. 연구자들의 척도 개발을 통해 확인된 커뮤니케이션 능력의 구성요소들을 설명해 보면 다음과 같다.

Wiemann은 대학생들의 상호작용 행동을 녹화 분석하여 커뮤니케이션능력 척도를 개발하였고, 여기에서 감정이입, 협력, 지지, 행동적 융합성, 사회적 긴자

완화, 상호작용 관리라는 커뮤니케이션 능력의 구성요소를 확인하였다[11]. Cegala는 커뮤니케이션 능력의 인지적 차원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상호작용 관여 척도(Interaction Involvement Scale: IIS)를 개발하였고, 여기에서 지각력, 반응력, 주의력이라는 커뮤니케이션 능력의 구성요소를 확인하였다[12]. Rubin et al은 이전에 논의된 커뮤니케이션 능력의 구성요소들 중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10가지 하부개념을 추출하여 척도(Interpersonal Communication Competence: ICC)를 개발하였고, 자아노출, 감정이입, 사회적긴장완화, 주장력, 상호작용관리, 타인지향성, 표현력, 지지력, 즉각성, 환경통제라는 커뮤니케이션 능력의 구성요소를 확인하였다[13]. 반응력이란 대인 의사소통을 할 때 상대의 눈을 맞추거나, 고개를 흔드는 것, 또는 질문이나 맞장구로 상대가 이야기를 계속해서 이어나가며 더욱 구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독려하는 것으로 타인지향적인 의사소통 능력이다. 모든 의사소통 체계에는 잡음이 존재하기 마련인데, 대인 의사소통 시에는 물리적 잡음, 심리적 잡음, 의미적 잡음의 세 가지 잡음이 존재한다[14]. 잡음 통제력은 의사소통 상황에서 생기는 잡음을 인식하고 그것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며, 이러한 의사소통 능력이 있는 사람이 원만한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다.

커뮤니케이션 능력의 선행연구로써 Duran은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개인의 인지적 능력이나 지식뿐만 아니라 타인과 조화로운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능력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커뮤니케이션 영역에서는 물론 대인 관계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연구되었다고 말하고 있다. 커뮤니케이션 능력은 상호관계 질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또한 사회적 경험, 사회적 침착성, 관계만족도를 설명해 주는 중요한 능력임이 밝혀졌다[15]. 또한, 광고계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갈등 후의 인간관계나 문제해결 결과가 좋을수록 자신의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뿐만 아니라 다양한 선행연구들은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자율성이나 관계성과 높은 관련성이 있음을 제안하고 있다. 최민아는 관계성의 개념인 외향성이 높은 사람일수록, 또 자율성의 개념인 내적 통제성향이 높은 사람일수록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높게 나타난다고 주장하였다. 커뮤니케이

션 능력이 궁극적으로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고, 그 과정에서 매개적 변인으로 작용하는 자율성, 관계성, 회복탄력성과도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낸다는 점을 발견하였다[16].

2.2. 대인관계 만족도

대인관계 만족도의 개념은 인생은 만남의 연속이다. 영원히 만나지 못하게 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운명처럼 약연이면서도 자꾸 만나게 되는 사람이 있다. 혼자만의 의지로 진행되지 않는 것이 바로 대인관계라고 할 수 있다. 인간의 성장과정에서 성인기의 초기단계에 있는 대학생에 있어서 대인관계는 매우 중요하다. 생도 시기는 타인과 친밀감을 형성하고 그러한 능력을 개발하여 성숙한 대인관계의 바탕을 추구하는 중요한 심리사회적 발달단계라는 점에서 어떠한 발달단계보다도 대인관계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17]. 생도시절의 대인관계란 동기들 간의 만남을 통해 효과적이고 생산적인 인간관계를 형성하는 것이고, 생도들은 이러한 관계를 통해 보다 자기실현을 할 수 있는 인간으로 변화해 가는데 그 목적이 있다.

대인관계는 두 사람 혹은 그 이상의 사람들 간의 역동적이고, 지속적인 상호작용의 복합적인 과정이다. 적절한 대인관계 형성을 통해 개인은 정체감 확립, 건전한 성격 발달, 자아성취 등을 이룰 수 있지만, 그러지 못할 때는 정서적으로 어려움을 경험하게 되는 심리적 고통의 원인이 된다. 따라서 만족스럽고 친밀한 대인관계 경험을 통하여 성장하기도 하고, 어려움으로 인해 방해를 받기도 한다. 타인과의 친절하고 효율적인 관계는 인간의 행복과 불행, 만족과 불만을 결정하는 핵심적인 요소가 되어 인간의 삶의 질을 좌우하므로 타인과 원만한 대인관계를 맺을 수 있는 능력은 반드시 필요하며 매우 중요하다[18]. 사람들은 다양한 관계 속에서 대인관계가 만족스러운 경우 건강하고 바람직한 성장과 발달을 경험하게 되지만, 대인관계가 불만족스러운 경우 성장과 발달에 방해를 받게 되고 좋지 않은 경험을 하게 된다. 원만한 대인관계를 통해 개인은 정체감 확립, 건전한 성격발달, 자아성취감, 행복감 등 인간의 욕구만족을 이룰 수 있다. 그러나 대인관계의 욕구가 충족되지 않으면 불안이나 우울, 욕구좌절, 소외 등의 다양한 어려움을

겪게 된다(권석만, 1997). 사회적으로 원만한 대인관계를 맺으며 적절하게 기능하고 있는 사람이라도 그 관계에서 개인이 주관적으로 경험하는 만족감의 수준을 실제 적용 모습과 다소 다를 수 있다. 특히 대학에서의 대인관계는 중, 고등학교 시기보다 구속력이 없는 자율적이고 자발적인 관계라고 볼 수 있는데, 친밀하고 깊이 있는 대인관계는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대인관계에 대한 깊은 관심과 더불어 실제적인 노력과 훈련이 필요하다. 현재 경험하고 있는 대인관계가 얼마나 만족스러운지 불만족스러운지에 대한 평가가 관계를 유지할지, 아니면 종결할지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 되며, 그 결과에 따라 또 다른 대인관계를 시도하게 된다. 또한 대인관계가 잘 이루어져서 사람들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고 자신의 대인관계가 만족스러운 경우에는 행복감을 느끼고 삶에 대한 만족도가 올라간다.

따라서 대인관계란 인간이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끊임없이 수행해야 할 중요한 과업의 하나로 볼 수 있다. 특히 생도 시기의 대인관계는 원만하고 성공적인 군 생활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이를 뒷받침하는 대인관계 만족도의 구성요인은 대인관계의 하위 범주 또는 부분적 개념으로 간주될 수 있는 것으로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 및 친구, 부모, 교사와 같은 중요한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개인이 요구하는 수준에 어느 정도의 만족감을 느끼는지를 나타내는 것으로 그 정도 차에 따라 만족, 불만족으로 구분되며 이러한 사람들과의 만족스러운 관계는 삶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19]. 김세현은 대인관계의 기본 요소를 자기 이해와 대인 역동의 인지능력, 타인의 이해 및 공감적 이해, 적절한 언어, 비언어적 의사소통, 공유적 사회지식의 기반으로 구분하였으며, 그는 대인관계를 이루는 기본요소를 자기 이해, 타인 인지, 공감적 이해, 언어 · 비언어적 의사소통, 공유적 사회지식 기반으로 나누었다[20]. 본 연구에서는 대인관계를 이루는 구성요인을 Carlson의 연구를 바탕으로 문선모가 제안한 대인관계의 7가지 하위영역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21]. 대인관계 만족도의 하위요인 중 만족감은 인간으로서 자신과 타인에 대한 만족감이나 타인이 나를 이해하는 태도를 말하며, 의사소통은 나와 타인과의 대화에서 서로의 생각과 느낌을 전달하거나 수용하는

능력으로 다른 사람의 감정, 생각, 의도 등을 서로 공유하는 것을 말한다. 신뢰감은 대인관계 속에서의 믿음의 정도를 말하고, 친근감은 내가 타인에게 갖는 관심이나 친근감을 갖는 정도를 말하는데 상대방에 대한 믿음은 심리적 안정을 가져오게 하고, 바람직한 대인관계 형성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 또한 민감성은 타인에 대한 나의 감수성의 정도로 느낌이 날카롭고 예민한 성질을 말한다. 타인이 보내는 신호에 빠르게 대응하는 것은 자신이 상대방을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집중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다른 사람으로부터 신뢰감 및 친밀감을 형성할 수 있는 바탕이 될 수 있다. 개방성은 자신의 내면을 타인에게 표현하거나 솔직하게 개방하는 정도를 말하는데 자신이 원하는 것을 정확히 전달함으로써 만족감을 얻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이해성은 이성적으로 사리를 분별하여 해석하며 포용하면서 타인의 느낌을 이해하는 정도를 말하는데, 서로가 요구하는 것에 대해 정확하게 판단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며, 서로에 대한 신뢰감의 바탕이 되는 것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보다 더 넓은 사회로 나가 많은 사람들과 다양한 관계를 형성하며 활동하게 될 사관생도들에게 있어 대인관계는 개인적인 성장과 발달뿐만 아니라 원만한 군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도 매우 중요한 과업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성격유형이 대인관계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사관생도의 대인관계 만족도 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을 개발하고자 한다.

2.3. MBTI(Myers Briss Type Indicator)의 개요

MBTI는 융(C. G. Jung)의 심리유형론을 근거로 하여 Katharine Cook Briggs와 Isabel Briggs Myers가 보다 쉽고 일상생활에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고안한 자기보고식 성격유형지표이다. 융의 심리유형론은 인간행동이 그 다양성으로 인해 종잡을 수 없는 것 같이 보여도, 사실은 아주 질서정연하고 일관된 경향이 있다는 데서 출발하였다. 그리고 인간행동의 다양성은 개인이 인식하고 판단하는 특징이 다르기 때문이라고 보았다[22]. MBTI는 1900~1975년에 걸쳐 Katharine Cook Briggs와 Isabel Briggs Myers에 의해 개발되었다. 그들은 자서전 연구를 통한 성격분

류로 사람들의 차이점과 갈등을 이해하려는 노력을 하였고, 1921년 융(C. G. Jung)의 심리유형이론을 접하면서 인간관찰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를 시작하였다. 이 후 MBTI Form A, B, C, D, E를 거쳐 1962년 Form F가 미국 ETS(Educational Testing Service)에 의해 출판되었고, 그리고 1975년 Form G를 개발하여 미국 CPP에서 출판되었으며, 현재에 Form J, K, M, Q등이 개발되어 있다.

그리고 MBTI 와 성격유형에 따른 선행연구로써 인간은 출생에서부터 혼자 존재할 수 없는 관계적 존재이다. 인간은 성장과 더불어 관계의 범위가 공간적으로 확대되어 가며 복잡한 인간문제에 얽히게 된다. 주어진 상황에 대한 적응과 더 나은 상황의 선택, 그리고 개인이 속한 집단에 적절하도록 상황을 재구성하는 과정에서 인간관계의 행동은 논리적인 것 외에 비합리적인 감정적 대처도 포함이 되어 상호작용하기 때문에 타인과의 마찰이나 충돌이 발생하기도 한다. 인간관계가 학문으로 정립되는 출발점은 1920년대의 Hawthorne 실험에서 시작되었다. 이 연구는 직원들의 작업능률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실시되었던 실험연구로, 경영의 효율성을 위해서 출발하였다. 그러나 이 연구의 결과는 직원들의 작업능률이 물리적 요인보다는 인간 관계적 요인에 결정적인 영향을 받는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인간 관계론이 인간관리를 위한 학문으로서의 가치를 갖는데 커다란 영향을 끼쳤을 뿐만 아니라 인간관계는 개인 내,외적 요인에 의해 형성되는 것으로 결국은 인간의 심리적인 문제와 연결고리를 갖는다는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인간관계라고 하면 학자의 관점과 견해에 따라서 다양한 형태와 내용으로 정의를 내리고 있다.

Rubin, R. B.(1990)는 인간관계를 협동적 인간 행위의 사실을 취급하는 적절한 방법론적 기술 관점이라고 정의하였고, Wiemann, J.(1977)에 의하면 인간관계는 직원으로 하여금 그들의 한 구성원으로서 상호 생산적이고 협동적으로 잘 어울려 지낼 수 있도록 그들의 경제적, 심리적, 사회적 욕구를 만족시켜 주면서 그들의 직장의 전체적 상황 속에 통합시키는 작용이라고 했다. 이형득은 두 사람 또는 그이상의 사람들 간의 역동적이고도 계속적인 상호작용의 복합적인 패턴으로서 인간관계란 그 관계를 형성하는 둘 또는

그이상의 구성들의 상호지배, 상호의존적 요소를 내포하고 있다고 하였다. 인간은 '나'와 '너'의 상호의존적인 존재들이기에 두사람 중 어느 한 쪽이 자기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상대방에게 흡수되어 버려서는 안 된다. "진정한 인간관계란 타인과의 관계 속에 있는 자기를 이해하고, 수용하며 개방하는 것뿐만 아니라 관계를 맺는 타인을 이해/수용/개방하여 새로운 '우리'로 거듭 태어날 때 가능하다. 즉, 나라고 하는 독립적 자기와 관계 속에 있는 상호의존적 나라는 두 측면을 모두 갖추고 통합할 때 진정한 자기성장과 성숙한 인간관계를 가질 수 가 있다." 그러나 사람들은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와 함께 자기 방어적으로 가면을 쓰고 타인과 관계를 맺거나 욕구 충족의 도구로써 타인을 이용하게 되어 인간관계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 이는 자기 이해 부족으로 자기를 수용하거나 개방할 수 없기에 해결되지 않은 문제와 함께 타인에 대한 이해와 수용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한다. 특별히 기독교청년에게는 교회라는 공동체 속에서 인간관계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일이 많이 있는데 본 연구자는 MBTI를 통해 자기이해와 타인이해에 도움을 주고자 한다[23]. MBTI 성격유형 16가지에 개인을 한 유형으로 단정시키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관계에서 오는 갈등과 원인을 찾을 수 있고 좀 더 나아가 자기를 탐색해 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있는 모습 그대로 수용하는데 있어" 도움을 주며 뿐만 아니라 4가지 기질을 통해 자신의 기질과 타인의 기질을 알게 되고 신앙생활을 표현하는데 있어서 일괄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신앙생활유형이 다르게 나타난다는 것을 깨닫고 자연스럽게 표현 할 수 있으며 서로 협력해서(상호작용) 선을 이루는 교회공동체가 될 수 있을 것이다.

Wiemann은 연구를 통해, 학습자의 정의적 혹은 인지적 스타일에 따라 학습자들 간에 선호하는 학습방법이 다르다는 사실을 밝히고 학습자의 성격을 연구할 필요성에 대해 언급하였으며, 그는 개인에 따라 선호하는 학습스타일이 다르므로 교사가 학생들이 갖고 있는 개인적인 차이를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성격유형이 개인적인 차이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요소 중 하나라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주장은 연구자 본인의 경험을 통해서도 인식하고 있었던 내용으로서 상당부분 동의한다. 현장에서 사관

생도를 지도하면서 연구자가 경험한 바에 의하면 내향적으로 보이는 학습자들은 교과내용을 소리 내어 읽거나, 단어를 암기하여 발표하는 활동을 불편해 하고, 자습을 통한 수업에 더욱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다. 또한 계획에 따라 학습을 진행하는 것을 좋아하는 학습자들은 수업시간에 늦는 법이 없이 시간 약속을 잘 지키고, 교사와 정해진 과제에 대해 마무리가 완벽하며, 마감 기한보다 미리 과제를 끝내고 여유롭게 자율시간을 즐기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었다. 반면에 비슷한 점수를 보이지만 충분한 휴식을 한 후 마감시간에 임박하여 고도의 집중력을 발휘하여 학습에 몰입하는 스타일을 보이는 학습자 유형을 보면서 학습자 중심의 수업을 이끌어 가기 위해서는 학습자 개인의 스타일을 존중하고 이해하여, 개인에게 적합한 최상의 학습법을 찾아 줄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임윤선에 의하면, MBTI 선호경향에 따른 커뮤니케이션 능력과 대인 만족도를 살펴보면, 대체로 외향형은 학습하는 동안 다른 사람과 상호작용을 하고 신체적으로 개입하여 배우기를 선호하며, 행동을 먼저 하고 흥미 있는 사실에 대해 친구들에게 가르치며 함께 하는 학습을 즐기는 데 비해 내향형은 개인적인 방법으로 학습하는 것을 선호한다. 감각형은 실제적이고 즉각적인 것으로 시작하며 학습하는 방식을 선호하고, 직관형은 새로운 기술을 시험해 보며 학습하는 방식을 더 선호한다. 사고형은 사물에 대한 냉정하고 객관적인 접근을 할 때 가장 학습을 잘 하며, 감정형은 개인적 관계를 통해 교실을 조직화 하는 교사와 함께 할 때 학습을 더 잘 하는 경향이 있다. 판단형은 조직화되고 예측할 수 있는 방식으로 학습을 할 때 최상의 에너지를 얻으며, 인식형은 자발적으로 스스로 선택한 과제를 할 때 최상의 에너지를 얻는 경향이 있다.

3. 연구방법

3.1 연구대상 자료수집

연구대상자는 경상북도 소재 특수목적대학교의 3학년 사관생도 519명을 대상으로 하여 설문을 실시하였고, 불성실한 설문을 제거한 490명이 대상이며, 자

료 수집은 설문조사를 통해서 얻어진 자료를 바탕으로 통계분석 하였다.

3.2. 연구도구

이 연구를 위한 측정도구는 MBTI 성격유형 검사와 커뮤니케이션 능력, 대인관계 만족도에 대한 검사 도구이다. 먼저 MBTI(Myers Briss Type Indicator) 성격유형은 Jung의 심리유형 이론을 경험적으로 검증하여, 실생활에 이용하기 위해 Briggs와 Myers에 의해 개발된 것으로, MBTI의 검사유형지는 93문항으로 구성된 Form M을 사용하였다. 둘째, 커뮤니케이션 능력으로 김세연(2005)은 포괄적 대인 커뮤니케이션 능력 척도를 개발하였는데, 이 척도는 자기노출, 역지사지, 사회적 긴장완화, 주장력, 집중력, 상호작용관리, 표현력, 지지, 즉서성, 효율성, 사회적 적절성, 조리성, 목표 간과, 반응력, 잡음통제력의 하부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요인은 1개의 진술문으로 되어 있으며, 총 15문항으로 측정은 ‘매우 그렇다’ 5점부터 ‘전혀 그렇지 않다’ 1점까지 구성된 5점 리커트 형 척도로 이루어져 있다. 전체 항목을 합산 평균하여 지수로 삼았다. 마지막으로 대인관계 만족도에 사용된 측정 도구는 인간관계 만족도 검사를 사관생도의 실정에 맞추어 재구성하였다. 이 검사의 하위영역은 일반적인 대인관계 만족도, 동기와의 만족도, 교수와의 만족도, 부모와의 만족도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은혁기가 수정보완하여 사용한 검사를 사용하였다[24]. 이 구성과정을 보면, 일반적인 대인관계 만족도 문항은 Schlin과 Guerney의 인간관계 변화척도를 이형득과 문선모가 번안하여 사용한 검사 중에서 일반적인 만족도와 관련된 하위영역에서 5문항을, 부모와의 만족도는 김재은의 “가정환경진단척도” 중에서 부모와의 만족감을 나타내는 7문항, 교사와의 만족도는 조종현의 “학교생활 적응검사지” 중에서 친구와 교사와의 만족감을 나타내는 문항을 각각 7문항 씩 사용하여 전체 26문항으로 구성되었다.

3.3 자료분석

이 연구는 설문지의 각 문항을 점수화 하여 통계처리를 하였다. 통계처리는 SPSSWIN 통계프로그램 18.0을 활용하였으며 분석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 사용된 척도의 신뢰도 검사를 위해 Cronbach's Alpha를 사용하였다. 둘째, 연구대상자의 성격유형과 대인관계, 커뮤니케이션능력에 대해 빈도,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와 같은 기술통계방법을 사용하였다. 셋째, 대인관계에 따른 커뮤니케이션 능력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서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대인관계, 커뮤니케이션 능력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일원배치분산분석을 사용하였고, 사후차이검증을 위해 LSD분석법을 활용하였다. 넷째, 대인관계와 커뮤니케이션 능력과의 관련성을 살펴보기 위해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4. 연구 결과

신뢰도란 동일한 대상, 특성 또는 구성을 비교가능하고 독자적인 측정으로 나타난 결과들이 어느 정도 유사한가를 나타내는 것으로 의존가능성, 안정성, 일관성, 예측가능성, 정확성 등의 동의어로 사용된다. 이 연구에 사용된 측정도구인 신뢰성은 Cronbach's Alpha를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일반적으로 0.6이상이면 비교적 신뢰성이 높다고 한다(Nunnally, 1978). 구체적인 연구결과는 다음 <표 1>와 같다. 표에서와 보는 바와 같이 모든 요인에서 Cronbach's 계수가 0.6 이상으로 나타나 신뢰성이 높게 나타났음을 알 수 있었다.

<표 1> 영역별 신뢰성 검증

구분	Alpha
일반적 대인관계 만족도	.85
부모와의 만족도	.60
교수님과의 만족도	.79
동기와의 만족도	.62
대인관계 만족도 전체	.85
커뮤니케이션 능력 전체	.77

남생도의 MBTI 성격유형 분포는 <표 2>에서 보

는 바와 같이 MBTI 성격유형에 따른 남생도의 분포를 살펴보면 ESTJ(16.7%)가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ISTJ(11.2%), ESFJ(10.8%), ENFP(10.4%), ESFJ(8.9%) 순으로 나온 것을 알 수 있다. 남생도의 외향과 내향을 차이를 살펴보면 외향은 472명 중 305명(64.6%)으로 나왔으며 내향은 167명(35.2%)로 나왔다. 남생도의 절반 이상이 외향적인 성향으로 나온 것을 알 수 있다.

<표 2> 남생도 MBTI 성격유형 분포

MBTI 유형	빈도	퍼센트(%)
ENFJ	22	4.7
ENFP	49	10.4
ENTJ	11	2.3
ENTP	17	3.6
ESFJ	42	8.9
ESFP	51	10.8
ESTJ	79	16.7
ESTP	34	7.2
INFJ	4	.8
INFP	21	4.4
INTJ	3	.6
INTP	9	1.9
ISFJ	19	4.0
ISFP	28	5.9
ISTJ	53	11.2
ISTP	29	6.1
합계	472	100

여생도의 MBTI 성격유형 분포는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MBTI 성격유형에 따른 여생도의 분포를 살펴보면 ENFJ(16.7%)와 ENFP(16.7%)가 가장 빈도수가 높고 그 다음으로 ENTP(11.1%), ESTJ(11.1%) 순으로 나온 것을 알 수 있다. 여생도의 외향과 내향을 차이를 살펴보면 외향은 18명 중 15명(72%)으로 나왔으며 내향은 5명(28%)으로 나왔다. 여생도의 경우 남생도에 비해 외향의 성향이 더 높게 나온 것을 알 수 있다.

<표 3> 여생도 MBTI 성격유형 분포

MBTI 유형	빈도	퍼센트(%)
ENFJ	3	16.7
ENFP	3	16.7
ENTP	2	11.1
ESFJ	1	5.6
ESFP	1	5.6
ESTJ	2	11.1
ESTP	1	5.6
INTP	1	5.6
ISFJ	1	5.6
ISFP	1	5.6
ISTJ	1	5.6
ISTP	1	5.6
합계	18	100

그리고 MBTI 양극차원의 분포는 <표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MBTI 양극차원별 성격유형에 따른 E/I, S/N, T/F, J/P의 분포를 살펴보면 E(외향형)는 65.1%이며, I(내향형)는 34.9%, S(감각형)는 70.2%, N(직관형)은 29.8%, T(사고형)는 49.4%, F(감정형)는 50.6%, J(판단형)는 49.4%, P(인식형)는 50.6% 순으로 나왔다.

<표 4> MBTI 양극차원별 분포

지표	선호경향	주요 활동	N	%
E/I(외향-내향)	에너지의 방향은 어느쪽인가?	주의 초점	319/171	65.1/34.9
S/N(감각-직관)	무엇을 인식하는가?	인식 기능	344/146	70.2/29.8
T/F(사고-감정)	어떻게 결정하는가?	판단 기능	242/248	49.4/50.6
J/P(판단-인식)	채택하는 생활양식	생활 양식	242/248	49.4/50.6

4.1 MBTI 성격유형에 따른 커뮤니케이션 능력

<표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일원배치 분산분석에서 성격유형과 커뮤니케이션 능력의 F값이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집단간(성격유형 간)

유의미한 차이를 검증하기 위해 사후 검정으로 LSD 방법을 실시하여 성격유형 간 차이가 있다는 것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표 5>MBTI 성격유형과 커뮤니케이션 능력

	제공 합	자유도	평균 제곱	F	p
집단-간	8.532	11	.776	5.293	.000
집단-내	66.091	451	.147		
합계	74.623	462			

사후검정으로 LSD방법을 활용하였다. 집단의 수가 많고 사례수가 최고와 최저의 차이가 3배 이상 나오면 사후의 유의미한 차이검증이 어렵다. 따라서 전체적인 면에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있으나 특정 성격유형이 다른 유형과의 차이가 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사례수가 3배 이상 차이 있는 사례수를 제거하여 LSD방법으로 검증을 하였다. LSD 방법은 가장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집단을 찾아서 집단 간 차이가 크게 나타나는 것을 알아보기 위한 방법으로 LSD방법을 활용하여 나온 성격유형 간 차이는 다음과 같다.

<표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두드러진 특징은 외향과 내향의 차이가 뚜렷이 보여 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성격유형	성격유형	평균차	표준오차	유의확률
ENFJ	ISTP	.357	.102	.001
	ISFJ	.327	.112	.004
	ISFP	.338	.104	.001
	ISTJ	.250	.091	.006
ENFP	INFP	.312	.110	.005
	ISFP	.295	.089	.001
	INFP	.269	.097	.006
	ISFJ	.284	.098	.004
ESFJ	ISTJ	.208	.074	.005
	ISTP	.314	.087	.000
	ISTP	.301	.091	.001
	INFP	.256	.091	.011
	ISFJ	.271	.101	.008
	ISFP	.282	.092	.003

ENTP	ISTJ	.194	.078	.013
	ISFP	.248	.115	.032
	ISTP	.267	.114	.020
ESFP	ISTP	.309	.088	.000
	INFP	.264	.097	.007
	ISFJ	.279	.099	.005
ESTJ	ISFP	.290	.090	.001
	ISTJ	.202	.074	.007
	INFP	.338	.092	.000
ESTP	ISFJ	.353	.093	.000
	ISFP	.364	.083	.000
	ISTJ	.277	.067	.000
INFP	ISTP	.383	.080	.000
	ISFP	.198	.096	.041
	ISTP	.216	.094	.022
INFP	ESTJ	-.312	.1092	.000
	ENFJ	-.312	.110	.005
	ENFP	-.269	.097	.006
	ESFJ	-.256	.100	.011
	ESFP	-.264	.097	.007
ISFJ	ESTJ	-.353	.093	.000
	ENFJ	-.327	.112	.004
	ENFP	-.284	.098	.004
	ESFJ	-.271	.101	.008
	ESFP	-.279	.099	.005
ISFP	ENFP	-.295	.089	.001
	ENFJ	-.338	.104	.001
	ENTP	-.248	.115	.032
	ESFJ	-.282	.092	.003
	ESFP	-.290	.090	.001
ISTJ	ESTJ	-.364	.083	.000
	ESTP	-.198	.096	.041
	ESTJ	-.383	.081	.000
	ESFJ	-.194	.078	.013
	ESFP	-.309	.088	.024
ISTP	ENFJ	-.202	.074	.007
	ENFP	-.208	.074	.005
	ENFJ	-.357	.102	.001
	ENFP	-.314	.087	.000
	ENTP	-.267	.114	.020
ESTP	ESFJ	-.301	.091	.001
	ESFP	-.309	.088	.000
	ESTJ	-.383	.081	.000
	ESTP	-.216	.094	.022

* $p < .05$

바와 같이 커뮤니케이션 능력에서는 외향과 내향의 차이가 뚜렷하다는 것이 여기서도 검증이 되었다.

4.2 MBTI 성격유형에 따른 대인관계 만족도에 관한 능력

<표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일원배치 분산분석에서 성격유형과 대인관계 만족도 간의 F값이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집단간(성격유형 간) 유의미한 차이를 검증하기 위해 사후 검정으로 LSD 방법을 실시하여 성격유형 간 차이가 있다는 것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대인관계 만족도는 대인관계의 하위 범주 또는 부분적 개념으로 간주될 수 있는 것으로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 및 동기, 부모, 교수와 같은 중요한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개인이 요구하는 수준에 어느 정도의 만족감을 느끼는지를 나타내는 것으로 그 정도 차에 따라 만족, 불만족으로 구분되며 이러한 사람들과의 만족스러운 관계는 삶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 <표 6>에서는 사람들이 외부에 대해 적용하는 방식을 외부지향과 내부지향의 두 형태로 분류될 수 있다고 보았다. 외부지향성은 신체 에너지가 밖으로 넘치기 때문에 항상 외부 것에 의해 행동이 유발되고 타인이나 환경에 의해 영향을 많이 받는다. 또한 외부지향형은 객관적 세계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새로운 환경에 쉽게 적응하고 어려운 문제에 부딪치면 그것에 직접 직면하여 해결하려는 경향이 있다. 이와 반대로 내부지향적은 주관적 세계 집착하며 새로운 환경에 적응이 어려우며 어려운 문제에 직면하면 간접적으로 해결하려고 시도한다. 따라서 본 연구 결과를 MBTI를 통한 성격유형을 파악한다면 다음과 같은 훈육기법으로 활용 될 수 있다.

<표 6>MBTI 성격유형별 대인관계 만족도 평균 차이 사후검증

성격유형	성격유형	평균차	표준오차	유의확률
ENFJ	ISTP	.524	.178	.003
ENFP	ISTP	.420	.151	.006
ESFJ	ISTP	.482	.158	.002
ENTP	ISTP	.534	.198	.007
ESFP	ISTP	.491	.152	.001

ESTJ	ISFP	.308	.145	.035
	ISTP	.545	.142	.000
INFP	ESTJ	-.313	.159	.050
ISFP	ESTJ	-.308	.145	.035
ISTJ	ISTP	.372	.151	.014
	ENFJ	-.524	.178	.003
	ENFP	-.420	.151	.006
ISTP	ENIP	-.534	.198	.007
	ESFJ	-.482	.158	.002
	ESFP	-.491	.152	.001
	ESTJ	-.545	.142	.000
	ISTJ	-.372	.151	.014

* $p < .05$

즉, 생도 상호간 대인관계 만족도에 성격에 따라서 차이가 있다는 인지능력을 키울 수 있으며, 더 넓은 사회로 나가 많은 사람들과 다양한 관계를 형성하며 활동하게 될 사관생도들에게 있어 대인관계는 개인적 성장과 발달뿐만 아니라 원만한 군 생활을 위해서 매우 중요한 과업임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 대인관계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성격유형을 파악해 봄으로써 생도의 대인관계 만족도 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다.

4.3 커뮤니케이션 능력과 대인관계 만족도 능력

커뮤니케이션 능력과 대인관계 만족도에는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상관분석을 하였고, 다음의 <표 8>은 두 변수간의 관련성을 연구하기 위해 보편적으로 이용되는 상관분석방법인 피어슨 상관계수를 나타냈다.

<표 7> 커뮤니케이션 능력과 대인관계 만족도와의 관계

구분	커뮤니케이션 능력	일반적 대인관계	부모 대인관계	교수 대인관계	동기 대인관계	대인관계 전체
커뮤니케이션 능력	$\alpha=.77$					
일반적 대인관계	.625(**)	$\alpha=.85$				
부모 대인관계	.282(**)	.335(**)	$\alpha=.60$			
교수 대인관계	.464(**)	.497(**)	.377(**)	$\alpha=.79$		
동기 대인관계	.550(**)	.597(**)	.380(**)	.434(**)	$\alpha=.62$	
대인관계 전체	.604(**)	.770(**)	.731(**)	.808(**)	.693(**)	$\alpha=.85$

** $p < .01$

<표 7>에서 보는 바와 같이 커뮤니케이션 능력과 대인관계 만족도의 관계에 대해 살펴보면 교수 대인관계 만족도와 대인관계 만족도 전체와는 $r=.808(p < .01)$ 의

정적인 관계를 보여 상관의 값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커뮤니케이션 능력과 대인관계 만족도에서 $r=.604(p < .01)$ 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즉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높으면 대인관계 만족도도 높음을 알 수 있다.

4.4 MBTI 성격특성을 적용한 훈육기법

MBTI 성격특성을 적용한 훈육기법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훈육의 정의를 살펴보면, 육군 3사관학교 훈육발전 세미나(2001) 및 육사 통합훈육체계에서는 군 생활에서 요구되는 바람직한 품성을 특정한 훈련을 통해 기르며, 스스로 자기를 통제하여 규정을 준수하고 집단 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습관을 형성하는 것을 훈육이라고 정의하고 이것에 근거하여 훈육기법이란 이러한 훈육목표 달성을 위하여 적용하는 각종 제도, 규

정과 방침을 포함하는 다양한 형태의 모든 훈육수단으로써 본 연구에서는 주로 개인면담 그룹면담, 상담, 생도생활 적응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였다.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MBTI 성격유형 중 의사소통에 가장 영향을 주는 E(외향형)와 I(내향형)의 특성을 집중적으로 살펴보면서 생활 간 훈육방향에도움이 될 수 있는 훈육기법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생도 의사소통 방법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외향형은 생동감 있고, 열정적인 토론의 장에서 에너지를 얻는다. 이들은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면서 진행시켜 나가기 위해, 상대방의 대화 중간에 끼어들어 빠른 속도로 이야기 하는 경우가 많다. 폭넓고, 새로우며, 흥미로운 생각과 아이디어는 더욱 빨리 표현하고 나타내려고 한다. 내향형은 내적으로 성찰할 수 있는 공간과 조용한 대화를 통해서 에너지를 얻는다. 이들의 대화 속도는 내적으로 생각과 아이디어를 형성하며 만들어 가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느리게 진행된다. 이러한 의사소통 방식은 생각하고 말할 시간을 마련해 주는 환경 속에서 안정감을 얻게 되고 그 깊이를 더할 수 있다. 그러나 외향형의 대화법은 내향형의 사람들이 내적으로 생각을 돌아본 후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주지 못할 때가 많다. 생각한 것을 바로 이야기하는 선호 특징 때문에 외향형은 내향형이 자신처럼 생각한 것을 바로 이야기하거나 토론하지 못한다는 것을 들었을 때 놀랄지도 모른다. 외향형의 관점에서 보면, 내향형이 추가적인 의견을 일부러 말하지 않으면서 단지 “버티고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 따라서 E(외향형)과 I(내향형)의 유형별 훈육지도 방안을 살펴보면 외향적인 사람들은 목소리가 큰 사람, 나서기를 좋아하는 사람, 적극적인 사람, 행동이 앞서서 사람들이며 내향적인 사람들은 그런 외향적인 사람들의 틈에서 자신의 목소리를 내고자 하나 기다려주는 사람 없고, 먼저 나서서 행동하는 생도들의 모습이 더 돋보이는 환경으로 내향적인 사람들은 더욱 주눅이 들고 혹시나 잘못된 일이 있다면 오랫동안 끔끔 앓고 결국은 자신의 사고체계에서 “자신은 생도생활이 맞지 않는 구나”라는 결정을 내리게 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훈육관은 이들의 특성을 이해하는 부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MBTI 성격유형별 자기이해를 도모한다. 세

상에 인간이 존재하는 만큼 성격유형도 존재한다. MBTI 성격유형은 개인의 타고난 선호경향을 대변해주는 것으로써 자신의 유형에서 강점과 열등기능을 발견하여 강점을 발전시키고 열등기능을 개발하기 위한 동기부여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MBTI 검사결과를 바탕으로 자신의 내면을 탐구할 수 있으며 본인이 인지하고 스스로 노력만 한다면 자기개발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셋째, MBTI 성격유형별 타인이해를 도모한다. MBTI는 자기이해를 통한 타인이해를 그 다음 목적으로 한다. 자기와 다른 유형의 강점을 이해하고 수용한다면 인간관계에서 타인을 배려하고 이해할 수 있으며, 더 나아가 공감대 형성을 위해 노력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넷째, 적응 및 갈등 관리에 활용할 수 있다. 새로운 환경에의 적응은 누구에게나 스트레스이다. MBTI 관점에서 본 적응을 잘 한 경우는 자신의 유형을 잘 발휘하는 곳을 편안해 한다. 자신이 자신의 유형에 대해 자각하고 있으며, 자신으로서의 정체성에 혼란이 없는 것을 말한다. 자신의 유형을 잘 발휘하는 사람은 주변 사람들에게도 안정감을 주며 자신의 행동에 스스로 자연스러움을 느낄 수 있다. 다음의 <표 8>은 MBTI를 적용한 대인관계 향상 훈육기법을 제시하였다.

<표 8> MBTI를 활용한 대인관계 향상 프로그램

회기	프로그램 주제	프로그램 세부내용	시간
1	관계 속에서의 나 - 프로그램 소개 - 규칙정하기 - 비밀보장 - 서약하기	. 오리엔테이션 및 자기소개, 목표설정 . 나는 누구인가(문장완성검사) . 장점과 단점 나누기	60분
2	집단 속에서의 나 - Ice Breaking - MBTI 검사 실시 - 칭찬실습	. MBTI 성격검사를 통한 자기이해 및 타인이해 . 3가지 형용사 선물(칭찬하기) . 자신에게 주는 칭찬메시지 작성하기	60분
3	대인관계 개선목표 확인 - 대인관계 작도 - 프로그램 평가 및 소감나누기	. 20년 후의 내 모습 . 대인관계 작도 그리기 - 대인관계 작도를 통해서 집단원의 성향 이해하기 . 마무리(소감문 작성)	60분

5. 결론

5.1 연구결과 요약

MBTI 성격유형에 따른 커뮤니케이션 능력과 대인관계 만족에 관한 연구에서 연구문제의 답을 살펴보면, 첫째, MBTI 성격유형에 따라 커뮤니케이션 능력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고, 유형간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서 사후검정으로 LSD를 활용하였다. 그 결과 커뮤니케이션 능력에서 E(외향형)와 I(내향형)의 성격을 가진 유형들 간의 차이가 가장 많이 난 것으로 보아 외향과 내향의 성격특성이 커뮤니케이션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이 증명되었다. 사관생도들의 경우 가장 많은 성격유형은 ESTJ (490/16.5%)이며, 그 다음은 ISTJ(490/11%)유형으로 나왔다. 진로변경을 결심하는 대부분의 생도들의 경우 생도생활에 대한 부적응으로 상처를 많이 받고, 자신은 적극적이지도 못하고, 활발하고 싶지만 그렇지 못한 자신을 자책하며 결국은 진로변경이라는 결정을 하는 경우가 많았다. 생도들의 훈육방법에서 외향적인 생도들에게 가려져 자신의 의사를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고 자신의 부족한 부분만 터득하여 잘 적응하지 못해서 다른 곳으로 진로를 변경하는 생도들이 있다면 MBTI 유형에 맞는 훈육기법을 활용한다면 조기 적응을 유도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둘째, MBTI 성격유형에 따라 대인관계 만족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고, LSD를 활용하여 사후검정을 한 결과 커뮤니케이션 능력과 마찬가지로 E(외향형)와 I(내향형)의 성격을 가진 유형들 간의 차이가 가장 많이 난 것으로 보아 외향과 내향의 성격특성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증명되었다. 또 다른 점은 커뮤니케이션 능력에서는 E(외향형)와 I(내향형)의 성격을 가진 모든 성격유형에서 차이가 났으나 대인관계 만족도에서는 꼭 E(외향형)와 I(내향형)의 성격으로 구분되지는 않았다. 커뮤니케이션 능력과 대인관계 만족도에서 대인관계 만족도는 표면적인 부분의 변화보다는 좀더 깊은 다른 기질적 부분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여 진다. 따라서 기질별 훈육지도 방안을 살펴보면 SJ 유형들은 지나치게 마음의 규율이 많음으로써 융통성이 필요하고 일정한 지침과 방향만 제시해 주면 일에 대한 계획성이 뛰어나 미리 준비하는 모범생이지만 지나치게 일

중심으로 대인관계가 흐르지 않도록 지도를 하면 좋을 것이다. SP 유형들은 자유분방하고 독특함을 추구하므로 원칙을 강조하고 끈기있게 일처리할 수 있도록 지도하며 논리적이고 분석적인 부분을 보완할 수 있도록 하고 타인의 감정에도 귀를 기울이도록 지도한다. NF 유형들은 체계적이고 세부적으로 일에 대해 알려주고 우선순위에 따라 체계적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며 지나친 인간관계 집착은 지양하도록 지도한다. NT 유형들은 현실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타인의 가치도 인정할 줄 알도록 지도하고, 지적욕구나 창의적 아이디어를 칭찬하고 인정해 주는 노력이 필요하다. 셋째, 커뮤니케이션 능력과 대인관계 만족도 간의 상관성이 나타났다. 즉,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높을수록 대인관계 만족도도 높음을 알 수 있었다. 커뮤니케이션 능력과 대인관계 만족도의 관계에 대해 살펴보면 교수 대인관계 만족도와 대인관계 만족도 전체와는 $r=.808(p<.01)$ 의 정적인 관계를 보여 상관의 값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커뮤니케이션 능력과 대인관계 만족도에서 $r=.604(p<.01)$ 의 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였다.

5.2 연구의 한계 및 제언

이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점을 지니고 있다. 첫째, 설문조사 면에서 지역적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었다. 전 사관학교를 대상으로 설문한 것이 아니라, 경북지역 3사관학교를 국한해서 설문조사가 이루어졌고, 전군이 아닌 육군에 국한해서 설문조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지역적 한계와 다른 군과의 한계를 넘어서기는 어려웠다. 둘째, 대부분의 생도들은 일상생활에서 자신의 성격유형이 갖는 MBTI 기질적 특징을 드러내 보일 것이라는 것과 생도 고유문화에 관한 것은 전통적으로 답습한 방법에 의존하려는 경향을 보인다는 것이다. 이는 MBTI를 통해 알게 된 자신의 유형하나만으로는 자신의 내면의 갈등과 조직내에서 경험하게 되는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MBTI의 잘못된 활용으로 인간을 하나의 틀 안에 넣는 잘못을 범할 수 있는 것을 주의해야 한다. 즉 사람은 누구나 MBTI 성격유형 중 특정 한 가지 유형으로 구분되는 개체가 아니라 다각도적인 측면에서 고려되어야 할 대상이 때문에, 사관생도의

성격유형이 16가지로만 나누어 설명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 그리고 한 생도가 두 가지 유형을 높게 가질 수도 있는데, 그 중 점수가 더 높은 하나의 유형을 선택함으로써 비교적 같은 우위에 있는 다른 유형을 설명하지 못하는데 한계가 있다. 이러한 연구의 한계를 인정하면서도,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3사관학교에서는 3학년 1학기에 전체 생도를 대상으로 MBTI를 실시하고 있다. 즉 3학년 1학기에는 자기발견의 시간으로 MBTI Form-G 검사 및 결과해석 및 그룹작업을 통한 자기이해 시간을 실시하고, 3학년 2학기에는 자기개발 시간으로 MBTI 성격유형의 주기능 강화와 열등기능 개발을 하고 있다. 4학년 1학기에는 적용과 갈등의 시간으로 현상을 진단하며 자기의 선호경향 및 가치관 탐색을 하는 시간으로 주어진다. 그리고 4학년 2학기에는 타인이해와 선호경향 이해를 통해서 반대성격유형 이해와 임관 후 진로와 흥미영역에 초점을 두고 있다. 둘째, 사관생도의 MBTI 성격유형에 따라 커뮤니케이션 능력과 대인관계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에서 학교 내 성격유형별 다양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커뮤니케이션 능력과 대인관계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내향형에게 자신의 표현력을 높일 수 있게 발표와 토론 관련 수업을 증가하는 방안을 세울 수 있을 있다. 셋째, 성격유형이 커뮤니케이션 능력과 대인관계 만족도에는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증명되었다.

따라서 MBTI의 올바른 활용은 사관생도의 바람직한 인성교육이라는 훈육 목표 달성을 위해 개인차를 인정하고 개인이 가진 강점을 강화하며, 부족한 기능과 잠재력을 개발해 주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추후연구에서는 3사관생도를 대상으로 MBTI를 활용한 바람직한 인성교육을 위한 훈육기법 개발을 제안해 본다.

참고문헌

- [1] 이희경, “사관생도 정체성 향상을 위한 생도정체성 도구 개발”.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2.
- [2] Wiemann, J. M., & Kelly, C. W. “Pragmatics of interpersonal competence”. In Wilder-Mott and John H. Weakland (Eds.), *Rigor and Imagination: Essays from the Legacy of Gregory Bateson*, New York: Praeger, PP. 283-297, 1981.
- [3] 이진협. “조직 내 커뮤니케이션 유형과 갈등관리방식의 관계에 관한연구”. 단국대학교 행정법무대학원석사학위논문, 2007.
- [4] Myers, L. B., & McCaulley, M. H. “*Manual: A guide to the development and use of the Myers-Briggs Type Indicator*”. Palo Alto, CA: Consulting Psychologists Press. pp. 137-149, 1985.
- [5] 지용근·김옥희·김희수·김병숙. ‘인간관계론’. 박영사, 2004.
- [6] 문선모(1980). 인간관계 훈련 집단상담의 효과에 관한 일 연구. 경상대학교 논문집, 19(2).
- [7] 김기정·관오정, “중학생 교우관계의 유형, 형성요인 및 학교생활 적응도 분석”. 한국교육심리학회. 1980.
- [8] 여인주. “호텔종사원의 커뮤니케이션능력이 직무스트레스에 미치는영향” 조직지원을 조절효과로. 경기 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0.
- [9] Robin, R. B., et. al.. “Interpersonal communication competence: Scale development and test of a self-efficacy model”. Paper presented at the 77th annual meeting of the Communication Association, GA. 1991.
- [10] 장혜순. “갈등관리전략에 대한 상호인식과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상호관계에 미치는 영향”. 경희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3.
- [11] Wiemann, J. “Explication and test of a model of communicative competence”. *Human Communication Research*, 3, PP. 195-213, 1997.
- [12] Cegala, D. J. “Interaction involvement: A cognitive dimension of communicative competence”, *Communication Education* 30, PP. 109-121, 1981.
- [13] Rubin, R. B. “communication competence”. In

G. M. Philips & J. T. Wood(Eds.), *Speech communication: Essays to commemorate the 75th anniversary of the speech Communication Association*, PP. 94-129. Carbondale: Soythern Illinois University Press, 1990.

- [14] Wood, J. T. "Everyday encounters: An introduction to interpersonal communication". Belmont, CA: Wardsworth, pp. 241-263, 1996.
- [15] Duran, R. L., "Communicative adaptability", *A measure of social, communicative competence. Communication Quarterly*, 31, PP. 320-326, 1983.
- [16] 최민아, 신우열, 박민아, 김주환. "커뮤니케이션 능력은 우리를 강하고 행복하게 만든다": 회복탄력성과 자기결정성을 통해본 커뮤니케이션능력의 역할. *한국언론학보*, 53(5), PP. 199-220, 2009.
- [17] 국지수. "대학생의 교양체육 참여 동기에 따른 대인관계성향에 관한연구". *상명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5.
- [18] 임윤선, "성인에착이 대인관계 능력에 미치는 영향", *숙명여자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2.
- [19] 엄윤경. "자기성장프로그램이 일반가정과 특수가정 아동의 자아존중감과 대인관계 만족도에 미치는 효과". *전주교육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4.
- [20] 김세연.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갈등해결전략과 매체이용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5.
- [21] Carlson Learning Co. "Personal Profile System Facilitator's Kit I,II, III. Minneapolis", Sept, 1998.
- [22] 김정택, 심혜숙, 제석봉 공역. 『*MBTI 개발과 활용*』. 한국심리검사연구소, 1995.
- [23] 이형득. *인간관계훈련의 실제*, 서울: 중앙적성출판사, 1987.
- [24] 은혁기. "청소년들의 자기인식, 타인인식, 대인기술 및 대인관계 만족에 관한 연구": 학령별 · 성별 차이와 상관관계를 중심으로. *청소년상담연구*, 9, pp. 136-157, 2001.

[저자 소개]



황보 식 (Sik-Hwangbo)

1996년 2월 공주대학교 대학원
교육행정전공 석사
2012년 2월 영남대학교 대학원
교육행정전공 박사
현재 영남대학교 군사학과 교수
email : pilot514@hanmail.net



장 해 숙 (Hae-sook Jang)

2008년 2월 영남대학교
교육학과 석사
2011년 2월 영남대학교
교육학과 박사
현재 육군3사관학교
리더십센터 심리학교관
email : sheain@hanmail.net